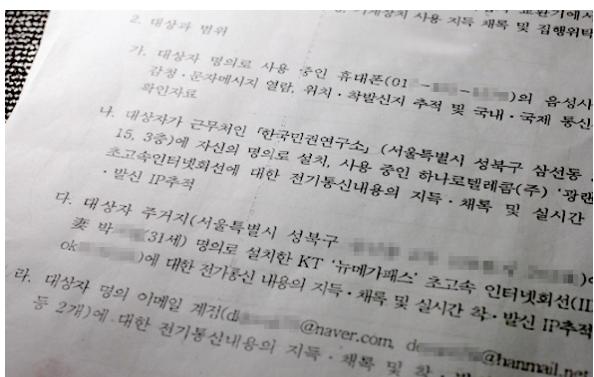


## 진보넷 종파업 특보 1

# 코레일, 국정원에 노조 회유 정려 보고!

국정원의 노조 사찰,  
이것만이 아니다!



국정원, 온나라 통신과 인터넷을 제ძ마대로 감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감청 중 국정원 비율이 95% 이상!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합계	국정원비율
2006	43	131	8,440	51	8,665	97.4%
2007	41	95	8,628	39	8,803	98.0%
2008	24	94	8,867	19	9,004	98.5%
2009	9	163	9,278	47	9,497	97.7%
2010	4	227	8,391	48	8,670	96.8%
2011	3	263	6,840	61	7,167	95.4%
2012	0	139	5,928	20	6,087	97.4%

“통신사가 보고하는 이 통계 이외에도,  
자신들이 보유한 장비를 직접 이용하는  
감청 규모는 상상 불가능.”

“인터넷 감청 중 일부는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들여다보는 소위 ‘패킷 감청’”

## 1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외압

경향신문(2009.10.28.)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양천구청에 양성윤 당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에 대해 징계하라고 압력을 행사. 2009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한 양 후보에 대해 양천구청은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 노조차원에서 담당부서에 중징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묻자 ‘국정원’ 등 각종 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와 버틸 수 없었다고 답했다고. 양 후보는 “중징계 요구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지도부 선출과 설립신고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주장.

## 2 기릉전자 노동조합 탄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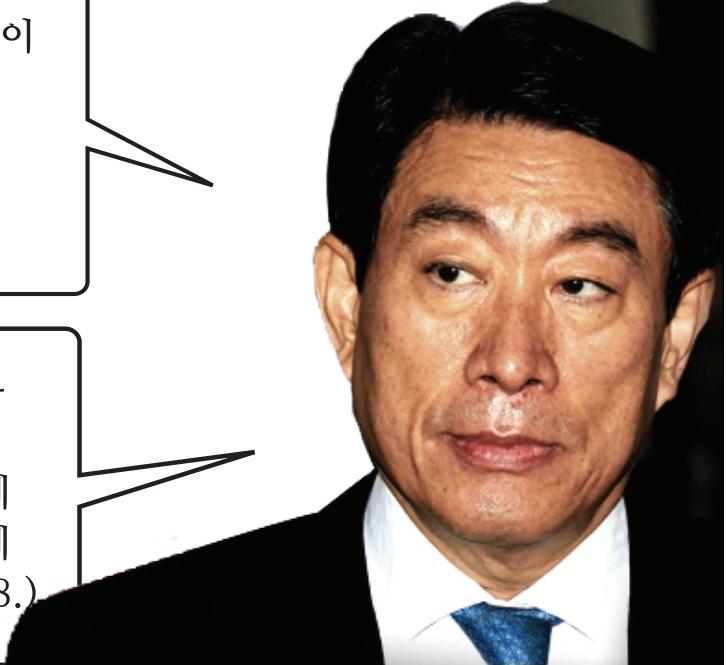
머니투데이(2008.9.8.)는 기릉전자 협상결렬 관련 기사에서 “기릉전자 노사갈등이 상급단체 힘겨루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협상 결렬 후 사측은 경영자총연맹과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안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

## 3 경북지역 노동조합 사찰

참세상(2011.10.7.)에 따르면 KEC지회는 국가정보원 까지 나서 노조를 사찰해왔음을 드러내는 회사 측 문건을 폭로. 문건의 제목은 ‘직장폐쇄후 상황일지’로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날짜별로 노조 측 동향을 상세히 기록. 2010년 11월 10일과 11일 일지엔 “관리자 비상 대기(4공장 점거 정보–국정원)”라고 적혀 있어, 사측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노조 측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임.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2009. 6. 19.)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 보다 지부장들이 유관 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2011. 2. 18.)



국정원장 원세훈(62)

## 국정원의 노동운동 사찰과 탄압, 어째서 근절할 수 없는가?

- 사찰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어
- 단 한 차례도 처벌받지 않아

## 안녕들 하십니까? 저희는 국정원 때문에 안녕하지 못합니다.

셀프개혁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댓글을 계속 달 모양입니다. 국정원을 막지 않고 우리가 과연 내년 선거에서 안녕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이 뽑는 서울시장, 국정원이 뽑는 경기도지사, 국정원이 뽑는 인천시장, 국정원이 뽑는 제주도지사 안 되리란 법 있습니까?

저희는 국정원 해체를 주장합니다! 국정원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비밀경찰입니다. 다른나라 비밀정보기관들은 인권침해 때문에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둘.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 공작을 벌이고 선거에 개입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셋. 국내 정치에 고질적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국회, 언론, 정당, 그리고 모든 정부기관을 감시하고 상관 행세를 합니다. 넷. 이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국회도, 법원도, 심지어 행정부처 어느 누구도 제대로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 패킷 감청으로 국민의 통신 비밀을 유린해 왔습니다. 앞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전체를 감시할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안녕을 위하여 국정원을 어떻게 손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